

소화기암 환자의 자아탄력성, 사회적지지 및 감사성향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

정지혜*, 임효남**, 이미향**, 김두리**, 이상억***, 성낙송***

*충남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원생

**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교수

***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

e-mail:jwisdom91@naver.com

The Effects of Ego-Resilience, Social Support, and Grateful Disposition on Post-Traumatic Growth in Gastrointestinal Cancer Patient

Ji Hye Jung*, Hyo Nam Lim**, Mi Hyang Lee**, Doo Ree Kim**,
Sang Eok Lee***, Nak Song Sung***

*Graduate student, College of Nursing, Chungnam University

**Professor, College of Nursing, Konyang University

***Professor, College of Medicine, Konyang University

요약

본 연구는 소화기암 환자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수술 후 간호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. D광역시 일개 대학병원에 내원한 소화기암 환자 중 수술치료를 시행한 후 3개월이 경과한 150명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3월 13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여 총 140부를 최종 분석하였다.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아탄력성($\beta=.25, p<.001$), 감사성향($\beta=.59, p<.001$)이었고, 모형의 설명력은 49.2%였다. 자아탄력성과 감사성향을 강화하여 외상 후 성장을 높이기 위한 실제적인 간호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.

후 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,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소화기암 환자의 수술 후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.

1. 서론

암 환자들에게 암 진단과 치료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, 정신과적 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[1], 이들의 외상은 다른 외상과는 다르게 치료와 회복의 지속적인 과정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, 질병 대처능력이 향상되는 독특한 성장을 경험한다[2,3].

외상 후 성장은 단순히 외상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닌, 외상 이전의 수준을 능가한 개인의 변화로서[4] 암 경험이 외상 후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우 높은 수준의 심리적 회복은 물론, 정신적 건강과 긍정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[5].

암 진단과 치료의 과정에서 외상을 경험한 소화기암 환자의 부정적 측면을 완화하고 긍정적 변화를 이루도록 돕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해야 한다. 따라서 본 연구는 소화기암 환자의 자아탄력성, 사회적지지, 감사성향과 외상

2. 연구방법

본 연구는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로서 D시에 소재한 일개 대학병원에 내원한 소화기암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8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3월 13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, 총 140부를 최종 분석하였다. 수집된 자료는 SPSS 23.0progra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.

3. 연구결과

3.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의 차이

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과 그에 따른 외상 후 성장의 차이는 <table 1>과 같다. 외상 후 성장은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

Table 1.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sease-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and the resulting difference in post-traumatic growth

(N=140)				
Characteristics	Categories	n(%)	Posttraumatic Growth M±SD	t or F(p)
Gender	Male	88(62.9)	3.11 ± 1.18	-1.072 (.286)
	Female	52(37.1)	3.33 ± 1.13	
Age(yr) (M±SD = 66.06±11.30)	<50	12(8.6)	3.14 ± 1.10	.567 (.638)
	50 ~ 59	24(17.1)	2.96 ± 1.21	
	60 ~ 69	46(32.9)	3.17 ± 1.18	
	≥70	58(41.4)	3.32 ± 1.16	
Marital status	None	5(3.6)	2.50 ± 1.20	.924 (.399)
	Married	102(72.8)	3.22 ± 1.09	
	etc.	33(23.6)	3.21 ± 1.36	
Educational level	≤Elementary school	15(10.7)	3.18 ± 1.04	.677 (.568)
	Middle school	53(37.9)	3.24 ± 1.22	
	High school	43(30.7)	3.01 ± 1.19	
	≥College	29(20.7)	3.40 ± 1.09	
Occupation	Yes	81(57.9)	3.26 ± 1.18	-.571 (.569)
	No	59(42.1)	3.15 ± 1.16	
Monthly income (10,000 won)	<100	76(54.3)	3.24 ± 1.15	.874 (.456)
	100 ~ 299	41(29.3)	2.98 ± 1.15	
	300 ~ 499	14(10.0)	3.52 ± 1.28	
	≥500	9(6.4)	3.30 ± 1.17	
Religion	None	57(40.7)	3.02 ± 1.06	1.055 (.381)
	Buddhism	50(35.7)	3.42 ± 1.16	
	Christian	24(17.2)	3.07 ± 1.39	
	Catholic	7(5.0)	3.28 ± 1.18	
	etc.	2(1.4)	3.88 ± 0.62	
Type of cancer	Stomach cancer	50(35.7)	3.11 ± 1.03	-.659 (.511)
	Colon cancer	90(64.3)	3.24 ± 1.23	
Cancer stage	Stage 1	53(37.9)	3.11 ± 1.10	1.623 (.187)
	Stage 1	25(17.8)	3.32 ± 1.33	
	Stage 1	53(37.9)	3.34 ± 1.15	
	Stage 1	9(6.4)	2.49 ± 0.96	
Type of cancer treatment	Operation	56(40.0)	3.15 ± 1.10	.074 (.929)
	Operation and Chemotherapy	67(47.9)	3.21 ± 1.19	
	Operation and Chemotherapy and Radiotherapy	17(12.1)	3.26 ± 1.31	
Years since diagnosed (M±SD = 2.99±3.30)	>1	30(21.4)	3.36 ± 1.05	.804 (.493)
	1~ <3	63(45.0)	3.04 ± 1.26	
	3~ <5	28(20.0)	3.21 ± 1.16	
	≥5	19(13.6)	3.41 ± 1.02	

3.2 대상자의 자아탄력성, 사회적지지, 감사성향 및 외상 후 성장 정도

자아탄력성은 $2.97 \pm .61$ 점이었으며, 사회적지지는 $4.09 \pm .85$ 점, 감사성향은 5.74 ± 1.09 점, 외상 후 성장은 3.19 ± 1.16 점이었다<table 2>.

Table 2. Degree of Ego-Resilience, Social Support, Gratitude and Posttraumatic Growth

(N=140)		
	M±SD	Range
Ego-Resilience	2.97 ± 0.61	1 - 4
Interpersonal relationship	3.32 ± 0.60	
Vitrility	3.04 ± 0.76	
Emotional control	3.18 ± 0.81	
Curiosity	2.71 ± 0.83	
Optimism	2.78 ± 0.84	
Social Support	4.09 ± 0.85	1 - 5
Family support	4.34 ± 0.90	
Healthcare provider support	3.85 ± 1.01	
Gratitude	5.74 ± 1.09	1 - 7
Posttraumatic Growth	3.19 ± 1.16	
Changed perception of self	3.51 ± 1.24	
Relating to others	3.43 ± 1.36	
New possibilities	2.87 ± 1.52	
Spiritual change	2.14 ± 1.72	

3.3 대상자의 자아탄력성, 사회적지지, 감사성향 및 외상 후 성장 간의 상관관계

대상자의 모든 변수가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<table 3>.

Table 3. Correlation between Ego-Resilience, Social Support, Gratitude and Posttraumatic Growth

(N=140)			
	Ego Resilience	Social Support	Gratitude
	r(p)	r(p)	r(p)
Social Support	.195(.021)		
Gratitude	.232(.006)	.235(.005)	
Posttraumatic Growth	.397(<.001)	.254(.002)	.660(<.001)

3.4 대상자의 자아탄력성, 사회적지지, 감사성향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

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 중에서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가 없어 자아탄력성, 사회적지지, 감사성향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($F=45.857$, $p<.001$).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사성향($\beta=.59$, $p<.001$), 자아탄력성($\beta=.25$, $p<.001$)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49.2%였다<table 4>.

Table 4. Factors Affecting Posttraumatic Growth

	B	SE	β	t	p
(constant)	-2.18	.51		-4.267	<.001
Ego Resilience	.47	.12	.25	3.940	<.001
Social Support	.09	.09	.07	1.088	.279
Gratitude	.62	.07	.59	9.247	<.001
$R^2=.50.3$ Adjust $R^2=.492$ F=45.857 $p<.001$					

4. 결론

본 연구 결과, 소화기암 환자의 자아탄력성과 감사성향이 외상 후 성장을 이끄는 주요 변수로 확인되었다. 따라서 소화기암 환자의 수술 후 간호를 수행할 때 대상자의 자아탄력성과 감사성향의 수준을 파악하여 외상 후 성장을 이끄는 것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, 사회적지지는 외상 후 성장의 영향요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치료과정에 따른 사회적지지 정도를 확인하여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.

참고문헌

- [1] Shim, E. J., & Hahm, B. J. (2011). Anxiety, helplessness/hopelessness and 'desire for hastened death'in Korean cancer patients. *European journal of cancer care*, 20(3), 395-402.
- [2] Abbey, G., Thompson, S. B., Hickish, T., & Heathcote, D. (2015). A meta analysis of prevalence rates and moderating factors for cancer relate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. *Psycho Oncology*, 24(4), 371-381.
- [3] Jim, H. S., & Jacobsen, P. B. (2008). Posttraumatic stress and posttraumatic growth in cancer survivorship: a review. *The Cancer Journal*, 14(6), 414-419.
- [4] Maercker, A., & Zoellner, T. (2004). The Janus face of self-perceived growth: Toward a two-component model of posttraumatic growth. *Psychological Inquiry*, 15(1), 41-48.
- [5] Sun, H., & Lee, J. (2018). Psychosocial adjustment in korean colorectal cancer survivors. *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*, 48(5), 545-553.